엘살바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최 민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엘살바도르 국가 개황

1.1. 지형 및 기후

엘살바도르는 중미[1] 북태평양 연안에 위치해있는 2만 1,000㎢(한반도의 1/10)면적의 중미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나라이며,[2] 서쪽으로 과테말라, 북동쪽으로 온두라스, 남쪽으로 태평양에 접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해안지역은 열대기후, 고지대는 아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환태평양 조산 및 지진대에 속하여 국토의 90% 이상이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되었다. 또한 유일하게 카리브해로 통하는 해안선이 없는 중미(Central America)국가이다.

엘살바도르는 다른 중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지대와 고원지대로 구분되며, 크게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북부고원(해발 3,000피트 이상), 중앙고원(해발 2,000피트) 및 태평양 연안 저지대의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고원지대는 중앙아메리카 지협을 종단하는

* (choimj@krei.re.kr).

1) 중미는 통상적으로 멕시코에서 파나마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며, 멕시코를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로 포함시키고 중미는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7개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2) 2014년 기준, 엘살바도르의 인구는 약 610만 명으로 중미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으며 주로 유럽계 메스티소(Mestizo)와 미국 원주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World Bank 2015).

그림 1 엘살바도르 국가 지도

자료: 두산백과(2015).

시에라마드레산맥의 일부로 이 산맥은 북서부의 과테말라에서 시작되어, 두 개의 지맥을 이루며 북부 국경과 태평양 연안 근처를 따라 나란히 뻗어져있다. 엘살바도르의 산은 활화산(이살코산)을 포함한 대체로 화산성이며, 지진도 빈번하다. 전 국토의 1/4을 차지하는 중앙고원 지역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한다.

하천은 300개 이상이나 대부분 짧으며, 가장 긴 강인 렘파강(Lempa)에서만 배가 다닐 수 있다. 그 밖의 주요 하천으로는 과테말라와의 국경을 이루는 파스강, 온두라스의 동부를 남쪽으로 흐르다가 폰세카만(灣)으로 들어가는 고아스코란강 등이 있다. 엘살바도르에는 호수도 많으며 특히 코아테페케호는 양질의 미네랄워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엘살바도르의 기후는 온화한 열대성 기후로 건기와 우기로 뚜렷이 나뉘며 건기는 11~4월이고, 우기는 5~10월이다. 특히, 11월부터 4월은 여름시즌으로 카리브해의 기류가 온두라스 산맥을 넘어오면서 비를 내리기 때문에 북부 고원 산맥지역을 제외한 엘살바도르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더운 기후가 계속된다. 연평균 기온은 25℃이나

2~4월중 최고기온은 35~36℃까지 상승한다. 기후에 따라 온도차가 심하나 계절적인 특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태평양 부근의 저지대는 연중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중부 평원과 고원지대는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연강수량은 최다우 지대에서는 약 3,000mm, 최소우 지대에서는 1,500mm, 수도 산살바도르에서는 1,700~2,000mm이다.

표 1 엘살바도르 개황

일반	위치	중미, 북태평양 연안
	면적	2만 1,000 km^2 (한반도의 1/10)
	수도	San Salvador
	기후	열대 (해안), 아열대 (고지대)
	인구	610만 명 ('14)
	민족	메스티조 (86%), 백인 (13%), 인디안 (1%)
	언어	스페인어 (공용어)
	종교	가톨릭 (57%), 개신교 (21%)
정치	독립일	1821. 9. 15. (스페인)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단일공화제)
	국가원수	Salvador Sanchez Ceren대통령
	의회	단원제 (84석)
	주요정당	민족해방전선 (FMLN), 국민공화연합 (ARENA)
경제	GDP	251억 달러 ('14)
	1인당 GDP	3,958 달러 ('14)
	화폐단위	Colon (C)
	회계연도	1. 1.~12. 31
	산업구조	('13) 서비스업 61%, 제조업 29%, 농업 10%
	주요수출품	('13) 커피, 설탕, 직물, 금, 에탄올, 화학제품, 철강제품
	주요수입품	('13) 원자재, 소비재, 연료, 식음료제품
	주요부존자원	농산자원 (커피, 설탕)
	국제기구가입	UN, IMF, IFC, IDA, OAS, CACM, WTO, IDB, IBRD 등
	국제신인도	OECD 4등급, S&P BB-, Moody's Ba3, Fitch BB-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1.2. 경제 일반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경제규모는 세 번째로 큰 중저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 중 하나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근 엘살바도

르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1.7%, 2014년 2.0%, 2015년(추정치) 2.2%로 점차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인플레이션율은 1.1%로 추정된다. 2014년 엘살바도르의 명목 GDP 251억 달러, 1인당 GDP는 3,958 달러로 추정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3년 전체 엘살바도르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은 GDP의 10%, 제조업이 29%, 서비스업이 61%를 차지한다. 전체 GDP 비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농업 인구에 대한 부가가치는 1995년 1인당 1,500~2,500달러에서 2010년 2,500~3,000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주요 부존자원은 커피와 설탕으로 수출에서 농산품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농업국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문화 협정, 무역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 무상원조협정 등 다방면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소수의 농지과점에 기초한 전형적인 단일경작의 농업국이었으나 1960년대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OM) 출범 이후 공업화에 착수하여 1970년대에 중앙아메리카 최대 공업국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12년간의 내전으로 경제가 쇠퇴하여 미국의 원조와 해외거주자의 송금에 의존하였고, 1989년 집권한 국민공화연맹(ARENA)의 대통령 알프레도 크리스티아니는 가격통제 철폐, 수입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금리자유화 등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내전

그림 2 엘살바도르의 경제성장 추이(1980–2014년)

자료: World Bank(2015).

이 종료된 1992년 이후에는 건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4~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1995년까지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1996-1999년 멕시코 경제의 정체, 소비세율 상승 등으로 경기가 후퇴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선으로 둔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2.0%로 떨어졌다. 2001년 1월 1일자로 미국 달러를 자국 화폐와 공동 통용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2006년에는 10년 이래 최고인 3.9% 성장을 이루었다. 주요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농업, 금융, 상업 및 교통, 통신부문의 성장과 해외투자 및 국내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해외거주 교포의 송금 등을 들 수 있다. UNDP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엘살바도르는 급진적 산업화로 인해 남미 국가 중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0.662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1980년 대비 28% 상승한 점수로 중남미국가 중 16위(전체 187개국 중 115위)를 차지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빈곤율과 불평등 및 사회적 범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

1.3. 교역 및 대외거래

엘살바도르의 교역의 특징은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보인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총 수출액이 45억 2,100만 달러인데 반해, 총 수입액은 101억 1,400만 달러로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전통적으로 커피, 설탕, 금 등이며 최근에는 가공식품, 에탄올, 직물의 비중이 높아졌다. 주요수입품은 원료, 식품, 자본재, 소비재 등이다. 2015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국은 미국(45%),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독일이고, 주요 수입국은 미국(40%), 과테말라, 멕시코 중국 등이다.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2년 엘살바도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4억 6,2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1년에 비해 4.85% 증가하였으며, 2012년 말까지 엘살바도르의 총 FDI 유치 실적은 86억 3,500달러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금융 및 보험이 전체 투자 유치액의 44.2%를 차지하였고, 제조업에 2억 달러, 정보통신 분야에 6,900만 달러, 전력분야에 5,5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및 2015년(상반기)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FDI 유입이 1.6% 증가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중미 최저수준이다.[3] 외국으로부터의 누적 투자액은 미국이 가장 많으며 파나마, 온두라스 또한 엘살바도르의 주요 투자국이다.

엘살바도르는 2000년 이후 국가 수출구조가 변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3) 2014년 10월 중앙은행(BCR)에 따르면 2014년도 FDI 순유입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3.43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7년 연속 중미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통수출품인 커피, 설탕 등의 수출비중이 대폭 감소한 반면, 섬유의류보세업체(마낄라도라)[4]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체 수출의 58%를 상회하는 등 주요 품목이 되었다. 엘살바도르의 공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발달한 편이며, 면방직, 음료, 식료품공업 등의 경공업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비료, 가구, 경금속 등도 발달하였다.

표 2 엘살바도르 대외경제 현황(2011–2015년)

	경 제 지 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추정)	2015(추정)
대외거래	환율 (달러당, 연중)	C	1.0	1.0	1.0	1.0	1.0
	경상수지	백만 달러	–1,137	–1,264	–1,588	–1,627	–1,604
	경상수지/GDP	%	–4.9	–5.3	–6.5	–6.5	–6.1
	상품수지	백만 달러	–4,772	–4,927	–5,295	–5,593	–6,044
	수 출	〃	4,243	4,235	4,334	4,521	4,716
	수 입	〃	9,015	9,162	9,629	10,114	10,760
	서비스수지	〃	449	508	584	697	754
	외환보유액	〃	2,152	2,805	2,466	· ·	· ·
외채현황	정부채무/GDP	%	52.3	54.3	56.4	58.0	· ·
	국내정부채무/GDP	〃	23.5	22.6	25.1	27.2	· ·
	해외정부채무/GDP	〃	28.8	31.7	31.3	30.8	· ·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1,992	13,277	14,227	15,110	15,912
	총외채잔액/GDP	%	51.9	55.7	57.8	59.0	59.6
	단기외채	백만 달러	1,944	2,292	2,722	· ·	· ·
	외채상환액/총수출	%	28.3	26.6	26.8	25.9	27.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2. 엘살바도르 농업 현황

2.1. 농업 여건 및 정책

엘살바도르의 농업생산 방법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지금도 봉건적인 무역형태와 셰어크로퍼(생산물의 일부를 지대로서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인)가 존재한다. 주요 작

4) 마낄라도라 산업이란 외국산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 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상태로 재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집약형태의 산업을 총칭하며, 보세산업(In-bound Industry) 또는 쌍둥이공장(Twin Plants)이라고도 함(코트라 국가정보).

물인 커피생산은 외국자본 및 이와 결부된 엘살바도르의 대자본가가 지배하고 있으며, 화산성 토양과 독자적 재배기술로 독특한 풍미를 가진 고급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그 밖에는 목화, 설탕, 사이잘삼(Sisal hemp) 등이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옥수수, 쌀, 밀 등의 곡물이 자급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축산은 소, 돼지가 중심이며, 임산물로는 약용 발삼(Balsam)이 독특한 수출품이다.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이었으며, 식민지배시기 동안에는 인디고식물(Indigo plant, 쪽), 커피가 주요산업이었으며 20세기 초기까지 농산품이 전체 국가 수입의 9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 세기 중반부터 엘살바도르는 커피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및 금융개방화를 통한 경제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농업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식량안보[5]가 취약한 국가로 식량안보강화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식량안보 상태는 심각한 식량부족의 사례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나 농산품의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FAO는 엘살바도르 식량안보와 관련된 몇 가지 위험사례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2010-2011년 옥수수와 콩 가격이 40% 이상 상승했던 사례로, 이는 엘살바도르의 식량안보문제를 전면적으로 대두시켰다. 2010년 엘살바도르의 과도한 강우량과 국제 곡물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엘살바도르의 옥수수와 콩(기초 식품군)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엘니뇨현상으로 곡물 파종량이 매우 적어 식량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식량안보 문제는 수세기에 걸친 엘살바도르의 정부방침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80년 농업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수 재산가를 중심으로 토지운영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십 년 간 재배 가능한 단일작물(Mono-crop)을 중심으로 토지를 일구었고, 단일작물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다량 수입하였다. 그 대표적인 단일작물로는 16세기에 시작된 카카오, 18세기 인디고 식물(Indigo plant, 쪽), 19세기 중반 커피가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1871-1927년 커피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커피 교역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품목으로써 과두제 당시 정부가 관리하던 토지를 중심으로 커피를 다량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일반 농민들의 토지접근 강화를 목적으로 한 농민의 시위와 데모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농업분야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는 230여개의 사유지

5) 국제식량기구는 식량안보를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의 섭취욕구와 식품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 로 정의함.

500 헥타르에 대해 농업 개혁을 시행하였고, 이 면적은 전체 농지의 15%에 달하는 비중이었다. 당시에는 토지개혁 자유화를 통해 토지 재분배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존의 엘살바도르 농업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1989-1994년 크리스티아니(Cristiani)정부 당시, 크리스티아니는 가족 소유의 농업회사(Semillas Cristiani Bukard, SCB)의 수익 창출을 위해 다량으로 종자 수입[6]을 하는 등 개인의 부를 축적하며, 농산품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심화 시키고 농업 발전을 저해했다. 또한 크리스티아니 정부는 경제수출자유지역과 항구를 통해 제3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으로 수출을 하는 등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산품 및 서비스, 전기와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전되었으나 농업분야의 발전은 미미했다. 2009-2014년 푼(Fune) 정부는 엘살바도르의 농업생산이 다각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의 집중적인 곡물수입 전략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농업 분야의 발전계획이 부재하다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당시 엘살바도르에서 소비되는 과일과 채소의 약 95%, 옥수수의 40%, 콩 30%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에 푼 정부는 2011년 식량주권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소농가 및 가족농가의 역할을 명시했다. 정부는 소농 및 가족농은 엘살바도르에서 경작되는 곡식의 70%를 생산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식량안보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족농업계획(Family Agriculture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자급 농업 위주의 32만 5,000이상 가족농 가구에 무료 종자보급과 화학비료를 제공하는 등 농업생산력 향상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역부문을 살펴보면 엘살바도르는 도미니카 공화국, 칠레, 멕시코, 파나마, 대만, 콜롬비아, 미-중미 공동시장(CAFTA-DR)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로 엘살바도르에서 교역은 경제 부문에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13년 EU-중미 협력 협정이 발효되고 향후 중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협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엘살바도르의 교역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2. 주요 농산품

FAO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주요 농업 생산 품목은 생산액 기준으로 사탕수수, 닭고기, 우유, 커피, 소고기, 콩, 망고 등으로 설탕 생산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농업 수입 품목은 수입량 기준 옥수수, 기타 조제 식료품(Food Prep Nes), 팜유(Palm oil),

6) 과테말라에 본사 위치.

표 3 2011년 엘살바도르 주요 수출 농산품목

순 위	품 목	수출액(천 달러)	수출량(MT)
1	사탕수수	185,760	6487,423
2	닭고기	180,790	126,923
3	우유	126,730	406,105
4	생두	96,143	89,489
5	소고기	69,089	25,575
6	콩	61,609	107,811
7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61,415	102,500
8	계란	51,667	62,295
9	옥수수(Maize)	24,974	925,839
10	레몬, 라임	22,996	58,000

자료: FAO Stat(2015).

표 4 2011년 엘살바도르 주요 수입 농산품목

순 위	품 목	수입액(천 달러)	수입량(톤)
1	옥수수	209,327	603,724
2	기타 조제 식료품	170,649	51,602
3	팜 유	95,445	74,334
4	면직물	94,903	27,486
5	밀	89,348	243,849
6	대두박	64,105	144,620
7	소 · 송아지 살코기	59,547	13,488
8	치즈	55,251	16,253
9	콩(Dry)	47,903	44,385
10	음료	47,486	153,275

자료: FAO Stat(2015).

면직물, 밀, 대두박(Cake of soybeans) 순이다.

평균적으로 엘살바도르 가구의 식(食)소비 지출은 가계수입의 65% 정도이며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요 식품은 옥수수로 만든 또띠아, 콩, 계란, 빵, 육류, 채소이다. 식품 소비패턴을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빵과 고기를 소비하고 또띠아와 콩을 덜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미국 식문화에 익숙한 편이다.

본고에서는 엘살바도르 농업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작목인 커피와 설탕에 대해 기술하였다.

2.2.1. 설탕

(1) 설탕산업 전반

USDA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설탕산업 추이는 사탕수수의 다품종 생산 증가 및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인한 사탕수수 산업의 다각화, 제분공장 설비 투자, 미-중미 자유협정(CAFTA-DR)을 통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등으로 향후 3-5년간 상승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나, 국제 설탕가격의 하락 및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기후문제가 엘살바도르의 설탕가격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설탕 산업화, 생산, 배분과 관련한 국내 설탕 법은 엘살바도르 설탕산업이 재편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전에는 자연재해, 높은 수송비용, 관련 정책부재 등 사탕수수산업의 저해요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시장으로의 접근 확대, 설탕가격 상승 등으로 설탕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설탕산업은 사탕수수 재배 증가, 설탕 생산 증가, 대체에너지로의 변용 가능성,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에탄올 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설탕 법 제정에 따라 그 추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연료 생산관련 설탕법령은 현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급격한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설탕생산 및 소비

FAO에 따르면 2014-2015년 엘살바도르의 사탕수수 경지 면적은 7만 1,143헥타르로 전년대비 늘어난 수치이며 이에 따른 2014-2015년 사탕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만 메트릭 톤 증가한 635만 메트릭 톤 이었으며, 2014-2015년 설탕 생산량은 72만 5,000 메트릭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탕수수의 경작 면적이 늘어나고 품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가능해진 결과이다. 설탕 생산부문의 정책 기조는 사탕수수 재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재배 대신 수확시기에 사탕수수 밭을 태워 해충과 질병에 강한 신종 사탕수수품목을 연구하고 설탕제분(Milling) 과정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15-2016년도의 설탕생산은 올해 대비 1만 메트릭 톤 증가한 73만 5,000 메트릭 톤으로 추정되나, 엘니뇨현상 및 가뭄 등 기후 조건이 설탕생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탕수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국제 설탕가격의 호조세로 인한 것으로 에탄올생산 법령이 시행될 경우 사탕수수재배 면적은 더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탕수수의 설탕함유량에 따라 설탕 가격이 호조세를 지속할 수 있으며, 설탕 수익배분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는 전체 설탕 총 판매액의 54.5%의 수익을 얻고, 나머

지 45.5%에 대한 판매수익은 설탕제분 과정에서 수익이 책정되는데 설탕 제분공장(Mills)업자는 이 판매수익을 사탕수수 생산량에 따라 생산자들에게 배분한다. 또한 생산자들은 공장 미가동시간(Downtime)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설탕제분 공장에 고루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설탕회복율(Sugar recovery rates)[7]을 경쟁력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의 사탕류 및 주스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부소비는 안정세를 보여 2014-2015년도 국내소비는 28만 5,000메트릭 톤이 되었으며 미-중미 자유협정(CAFTA-DR)에 따라 설탕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2015년 중반기에 설탕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5-2016년 설탕 소비 예상치는 28만 8,000메트릭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경기불황 및 회복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설탕 교역

엘살바도르 정부와 엘살바도르 설탕위원회(Salvadoran Sugar Council, CONSAAA)는 수입관세 부과 및 시장접근 제한을 통해 전반적으로 설탕교역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원료당(Raw sugar)만 수출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정부는(the Government of El Salvador, GOES) 설탕 도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제한 할 것이다. 현재 백설탕 소매가격은 1파운드 당 평균 0.39달러(US)이고, 부가세금이 13% 부과된다.

표 5 2014-2015년 엘살바도르 원료당(Raw sugar) 주요 수출국 현황

단위: 메트릭 톤(MT)

기간	국가	2014년(MY)	2015년(MY)
1	미국 재수출(re-export)	85,690	94,000
2	한국(South Korea)	84,000	86,000
3	캐나다	61,500	63,500
4	호주	28,500	30,000
5	뉴질랜드	27,320	29,000
6	대만	23,394	25,000
7	네덜란드	18,092	19,500
8	이탈리아	3,171	4,500
9	스페인	2,440	3,500
–	*미국	60,439	65,500
수출 총계(기타국 포함)		403,801	429,600

자료: USDA(2015).

7) 설탕회복율이란 투입되는 사탕수수(즙) 메트릭 톤당 생산되는 설탕 생산 비율(%)이며 보통 9-11%가 일반적임.

2013년 11월, 엘살바도르는 중미지역 국가와 함께 EU와 무역협정을 채결하여 중미지역의 10만 메트릭 톤의 설탕을 무관세로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약 25만 메트릭 톤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시행했다. 또한 중미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협정이 타진될 경우 설탕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시장년도 기준, MY) 엘살바도르의 주요 원료당 수출국은 미국 재수출,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네덜란드 시장 순이었으며, 2014-2015년 설탕수출량은 43만 메트릭 톤, 2015-2016년도에는 45만 메트릭 톤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에 8만 4,000메트릭 톤을 수입하였고 올해 또한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설탕 수입관세에 종가세(Ad-valorem) 40%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가 설탕을 정치적으로 민감 품목으로 지정[8]하여 양허세율을 70%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미-중미 자유협정(CAFTA-DR)은 시장 혼란과 삼각차익거래(Triangular arbitrage) 피하기 위해 시장 지역 관세조화를 장려하고 있으나,[9] 중미지역 국가는 설탕품목에 대한 관세조화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4) 설탕관련 정책

엘살바도르 정부는 실명률(Blindness)을 낮추기 위해 내수시장에서 거래되는 설탕의 비타민A 함유량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와 가공업자의 투입비용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설탕생산 강화방안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수입관세를 통해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등 설탕산업 보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에탄올 등 대체연료 생산법은 정부의 심의를 통과하기 전이나, 이전 정부는 사탕수수를 에탄올이나 가솔린 생산에 이용할 경우 설탕산업에 10% 비용을 부과할 것에 동의했다. 현 정부는 경제적 수익성 및 환경과 소비자에게 미치게 될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추후 대체연료법령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엘살바도르의 설탕산업 수익성을 향상을 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수익성 있는 가격 책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탕생산, ②제조공정의 생산력 향상, ③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공정수입의 다양화, ④사탕수수 품종 개량을 통한 설탕 회복생산량 증가 및 양질의 설탕 생산, ⑤기타 설탕생산국과 기술-연구 교류협력, ⑥병충해와 질병에 강한 신품종 사탕수수 개량이 이에 해당된다.

8) 설탕산업은 농촌 소득 및 고용 창출에서 중요한 분야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함.
9) 관세조화란 각 나라마다 동일 품목에 대해 부고하는 세율이 현격히 다른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관세율을 평준화하는 관세인하 방식이며, 삼각차익거래는 3개국 통화 간에 발생하는 가격의 불일치를 이용한 거래임.

2.2.2. 커피(Green Bean)

(1) 커피 생산

2014-2015년도 엘살바도르의 커피 생산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62만 4,000자루(60kg)였으며 기록적으로 낮은 커피생산량을 보였던 2013-2014년도에서 회복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4-2015년 시장년도 기준(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으로 엘살바도르의 커피 수확이 연간 2회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측정기준 시점에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내년도(2015-2016년) 커피 생산량은 35만 1,000자루(60kg)로 예상되어 또 다시 생산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커피 녹병(Coffee Leaf Rust)으로, 녹병은 중미지역의 커피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최근 80년간 커피생산 중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건기가 길어지면서 커피생산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커피생산의 감소는 수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커피 생산 지원책

커피는 엘살바도르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현재 13만여 개의 커피산업관련 일자리가 있다. 커피생산이 1,000만 kg 줄어들 때마다 1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커피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5-2016년에는 4만개의 커피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동시에 도시 이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최근 급격한 커피생산 감소로 커피농가 및 고용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으며 유기되는 커피농가는 지역 환경과 조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 정부는 커피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국영 금융기관을 통해 커피 100kg 생산 당 70달러를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커피생산에 대한 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출조건으로 향후 커피재배 계획 및 사업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3) 커피 수출

2014-2015년도 커피수출은 커피녹병으로 인해 연 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54만 2,000자루(60kg)로 추정[10]되고, 2015-2016년도 커피수출량은 30만 1,000자루(60kg), 수출액은 5,500만 달러로 더욱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는 더 이상 엘살바도르의 주요 수출품목이 아니며 비전통적인 수출 품목이었던 에스닉(Ethnic)식품, 열대 과일 등이

10) 엘살바도르의 커피 수출량은 2013-2014년 41만 7,450자루(60kg), 2014-2015년 54만 2,000자루(60kg), 2015-2016년 30만 1,000자루(60kg)가 될 것이며 내년에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최근 수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15년도 엘살바도르 커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량의 47%인 25만 6,000자루(60kg)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이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주요 커피 수출국으로는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대만, 스웨덴이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는 스페셜티 및 고메(Gourmet) 원두와 같은 고품질 커피에 초점을 두어 수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커피 생산자는 마이크로-랏[11] 방식을 통해 유럽, 미국, 아시아 최고급 원두 소매상을 겨냥하여 수출하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 커피위원회(The Salvadoran Coffee Council)는 13회 "Cup of Excellence"[12]에서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엘살바도르에서 생산된 최상급 품질의 커피가 국내, 국외 커피 전문 심사단이 참여한 경매에서 채택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엘살바도르 커피는 기존 수출국이었던 미국, 일본, 유럽 소비자에게 현물시장에서 C등급을 받은 커피 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며 엘살바도르의 최상급 커피의 인지도는 높아지는 등 고메와 스페셜티 커피의 프리미엄 가격은 엘살바도르의 커피 수출을 증가시키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중미 스페셜티 커피 연합(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SCAA) 박람회에 엘살바도르 커피 수출

표 6 2014-2015년 엘살바도르 커피 수출 주요 국가 현황

단위: 자루(60kg)

기간	국가	2014년(MY)	2015년(MY)
1	미국	256,532	142,562
2	독일	72,133	40,086
3	일본	65,082	36,168
4	캐나다	28,202	15,673
5	스웨덴	26,575	14,769
6	잉글랜드	22,236	12,357
7	벨기에	22,236	12,357
8	이탈리아	21,152	11,755
9	대만	5,424	3,014
수출 총계(기타국 포함)		542,350	301,400

자료: USDA(2015).

11) 대형농장에서 구획 구분하여 특별 관리를 하는 커피, 혹은 특정 지역의 특정 농장을 관리하여 얻어지는 커피이며 마이크로 랏 방식으로 얻어진 커피는 출하한 농장 뿐 아니라 농장주의 이력까지 자세히 설명됨.

12) 'Cup of Excellence' 는 최상급 품질의 커피에 주어지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그 선별과정은 여타 커피산업에서 비교 될 수 없을 만큼 매우 엄격하게 진행됨. 'Cup of Excellence' 에서 수상한 커피는 최상급 커피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되며 판매자는 최소 5배 이상의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음. 심사과정에는 원두의 특성을 기준으로 수 천 잔의 커피가 평가되고, 음용되며 평가되어짐. 경매에서 수상자가 받게 되는 가격은 매년 기록을 경신할 만큼 매 회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희귀하고 최상급 품질의 커피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업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새로운 고메 커피 소비시장을 찾고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대만, 일본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운영자와 커피 가공공장 운영자들로 구성된 역무역사절단(Reverse trade missions)을 통해서 엘살바도르(Salvadoran) 블랜드 커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4) 커피 수입

2014년 엘살바도르의 주요 커피수입국은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이며 브라질에서 수용성 커피생두 7만 8,458자루(60kg), 멕시코에서 6만 4,112자루(60kg), 니카라과에서 3만 5,696자루(60kg)를 수입했다. 최근 콜롬비아 또한 엘살바도르의 수용성 커피 상품 브랜드인 'Colcafe'와 'Juan Valde' 커피 매장에 진출하여 6,272자루(60kg)를 엘살바도르에 수출하는 등 엘살바도르의 커피 수입량이 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엘살바도르에서는 다양한 커피브랜드가 신설되는 등 커피상점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당분간 국내 커피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4-2015년도 엘살바도르 내수시장에서 소비된 커피생두는 27만 5,000자루(60kg)였으며 대부분의 내수소비는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에서 수입해온 수용성 커피였으며, 2015-2016년 내수소비는 24만 4,000자루(60kg)로 전망된다. 이처럼 엘살바도르의 커피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커피 가공 부가가치산업 및 지역별 커피생산 관련 지원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당분간은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로부터의 수용성 커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2014-2015년 엘살바도르 커피수입 주요 국가 현황

단위: 자루(60kg)

기간	국가	2014년(CY)	2015년(CY)
1	브라질	78,458	89,500
2	멕시코	64,112	68,500
3	니카라과	35,696	38,500
4	콜롬비아	6,272	8,200
5	칠레	3,360	4,200
6	온두라스	1,733	2,000
7	과테말라	1,399	1,600
8	페루	579	750
9	미국	3,497	3,850
수입 총계(기타국 포함)		197,800	219,600

자료: USDA(2015).

(5) 커피관련 정책

엘살바도르 커피생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부문의(생산자, 기업, 제조공장 등) 관계자를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프레임워크가 부족하고, 규제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또한 커피산업의 전략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커피 생산자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 간혹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엘살바도르 커피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처가 늦고 커피산업의 전반적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엘살바도르의 커피산업은 완전히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4분기 엘살바도르 농식품부는 CENTA카페를 설립하여 커피농가에게 기술보급 확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2분기에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살진균제를 공급하고 병충해 내성이 있는 커피나무 700만 주를 무료 보급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처럼 엘살바도르 정부는 소농가[13]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농가의 경지면적은 전체 커피 경작지의 10%를 차지하는 비율에 달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커피연합(SCA)은 이렇게 한시적인 정부의 지원책 보다는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한(25년 이상) 커피나무 재배지역을 개조하기 위한 대규모 이식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CA에 따르면 매년 700만 주 이상의 나무가 이식되지 못하여 자연 소멸하고 있으며 국영 커피 재배지 개간을 위해서는 병충해에 내성이 있는 커피나무 3,000만 그루를 10년 간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녹병(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 살충·살균제와 액체비료를 소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커피 녹병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신용한도(Loan ceiling)와 투입재 공급이 커피농가가 생산력을 높이고 녹병예방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미국 농무부(USDA)는 식량개발프로그램(Food for Progress)을 통해 국가협동조합(National Cooperative of Business Association)과 공동으로 농가규모에 상관없이 약 7,500커피농가에게 신기술 공급, 기술이전, 무병충 품종 등을 지원했다.

3. 엘살바도르 농업 · 농촌 개발협력 현황

엘살바도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식량안보 및 수자원이 위협받고 있는 국가이다. 예측 불가능한 강수량과 가뭄은 작물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생산량 감소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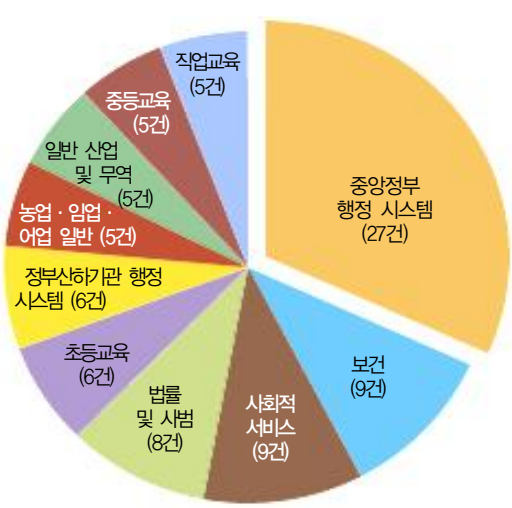
13) 소농가는 3헥타르 이하의 토지를 가진 농가로 규정함.

시장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특히, 홍수가 날 경우에는 강물 및 하천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해지는데, FAO 추정치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인구 중 16%만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환경·자원청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강의 2%만이 물 소비로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FAO는 전체 엘살바도르 인구 중 9%가 영양결핍이라고 밝히며, 식량접근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엘살바도르 농민 커뮤니티는 식량안보와 수질문제 개선을 목표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인 렘파(Lempa)강 하부지역의 관개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기에도 작물경작을 원활히 하여 일정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orld Bank에 따르면 2014년 엘살바도르에서 진행 중인 개발협력 사업은 총 63건 프로젝트로 중앙 정부 행정분야 27건, 보건 9건, 법률분야 8건, 초등교육 6건, 정부 산하 행정관련 6건, 일반 농림어업분야 5건 등으로 중앙정부 행정시스템과 관련한 ODA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 엘살바도르 ODA사업은 주로 미국, 일본, 스페인의 관련 부처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농업 생산성향상과 농업-비지니스 연계 서비스, 소농의 경제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SDA는 소농에게 밀 등의 농산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수익을 얻게 하였으며, 학교에 '우유공급 프로젝트(Glass of milk)'를 시행하는 등 무상지원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사업이 엘살바도르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고 농업 및 낙농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왔는지는 논란이 있으

그림 3 2015년 대 엘살바도르 분야별 ODA 프로젝트 현황



자료: World Bank(2015).

며,[14] 수원국 현지 상황에 맞는 방식과 현지 농민 중심의 실질적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ODA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엘살바도르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1년 시작된 코이카(KOICA)의 대 엘살바도르 지원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에 들어서면서 지원 규모가 연 1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23년간(1991년-2014년) 총 3,004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엘살바도르는 중남미 최초로 '한-엘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체결

표 8 1991–2014년 코이카(KOICA)의 대 엘살바도르 지원 실적: 총 3,004만 달러(잠정)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기간/지원규모)
프로젝트 (17건)	엘살바도르 식수공급시설지원 ('95–'96/ 30.97만 달러)
	엘살바도르 농촌식수공급 ('97–'98/ 53.82만 달러)
	엘살바도르 IT 교육센터 지원 사업 ('02–'03/ 39.54만 달러)
	엘살바도르 중미기술연구소 현대화 2차사 업 ('04–'05/ 32.9만 달러)
	엘살바도르 소비자보호청 IT 시스템 구축사업 ('05–'06/ 56.73만 달러)
	엘살바도르 소야빵고시 초중등학교 시설개선사업 ('07–'08/ 51.04만 달러)
	전염병 검사 · 관리 역량강화사업 ('07/ 76.95만 달러)
	엘살바도르 교육분야 정보통신기술 지원사업 ('07–'09/ 240.86만 달러)
	엘살바도르 임산부 요양소 건립사업 ('08–'10/ 184.56만 달러)
	엘살바도르 채소재배 생산성 향상 ('08–'10/ 180.21만 달러)
	엘살바도르 외교부 통합정보시스템 및 사이버교육센터 설립지원 ('09–'10/ 77.03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특수학교 건립사업 ('10–'12/ 249.92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사업 ('10–'11/ 221.72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농업기술역량강화사업 ('10–'12/ 198.43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아와차빤시 취약아동 사회편입 지원 사업 ('11–'13/ 217.05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한-엘 의료센터 건립사업 ('13–'15/ 300만 달러 약정 중 0.05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개발사업 ('13–'15/ 320만 달러 약정 중 55.6만 달러 지원)
물자지원	25건 268.33만 달러
긴급구호	6건 58.17만 달러
연수생초청	316명 250.03만 달러
전문가	6명 13.49만 달러
해외봉사단	전체 82명, 신규 61명 403.63만 달러

자료: KOICA(2015).

14) USDA가 '우유 공급 프로젝트(glass of milk)' 를 위해 미국에서 가루우유를 대량으로 수입, 공급함으로써 엘살바도르 현지 우유제품 가격이 폭락하게 되어, 현지 낙농업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

한 국가이며, 지원분야는 교육·보건의료·치안분야 중심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2007년 이후에는 엘살바도르정부의 '국가교육계획 2021' 및 국가개발계획(2010-2014), 위기극복방안(Anti-crisis Plan) 등 국가개발정책 목표달성과 빈곤퇴치 등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역량 강화 및 모성·영아사망률 감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엘살바도르 신정부(2014.6월 출범)의 5개년 국가개발계획의 정책목표 달성 등 새로운 개발수요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 엘살바도르 개발협력 사업은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엘살바도르 정부의 로컬 비용분담, 수혜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여 등 수원 태세 및 사업추진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015년 한국의 대 엘살바도르 ODA사업 지원 예산은 총 393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으며, 농업협력으로는 코이카가 시행하는 '엘살바도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은 국가 기초식량작물인 쌀 농업확대를 위한 관정개발, 관개시설 구축, 농민교육 및 농민공동체 조직을 통한 농민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엘살바도르는 지하수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관개시설 사업을 통해 물 이용방안 확대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엘살바도르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지하수자원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개시설 기술지원은 엘살바도르 농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4. 시사점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엘살바도르에서 한·중미[15]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개최되고 상품양허협상 등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향후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한-중미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6월, 9월에 걸쳐 한-중미 시장의 교역 협상을 위해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등 9개 분과 15개 챕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협상을 비롯하여 서비스·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미 6개국 수출은 37억 6,400만 달러, 수입은 12억 3,800만

15) 협상에 참여한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임.

달러 등 총 교역규모는 5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한-중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을 수출하고 중미 6개국은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의 수출을 늘려 상호 보완적인 교역의 형태로 그 규모를 점차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경우 수입-수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농산품목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신(新)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것 또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수입과일 소비 추세로 볼 때 한-중미 FTA 체결 이후 엘살바도르의 저가 수입과일이 대량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본격적인 한-중미 FTA가 본격화되고 경제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한-엘살바도르의 경제·농업 분야 협력 방안 또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엘살바도르는 전통적으로 설탕과 커피재배 중심의 농업국가로서 세계적인 수출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커피 생산량의 급속한 감소로 관련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이는 커피 녹병과 같은 병충해와 엘니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열대농업연구소(CIAT)는 2050년경 엘살바도르의 기온이 2.1도 상승하여 전체 커피 재배가능면적이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16], 엘살바도르 커피 재배업자 및 관련 기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또는 가뭄이나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 조건에 강한 신 커피 종(種)개발을 시급히 촉구했다. 따라서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병충해에 강하고 기후변화 조건에 강한 커피종자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엘살바도르 농업 협력 방안으로 6차 산업[17]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차 산업을 접목하는 방식은 외부 환경 저해요소에 강한 원두 품종 종자 개발부터 원두 재배, 가공, 생산, 유통 등 커피 품목의 가치 사슬에 유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엘살바도르의 커피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세계적인 커피 수출 등 농업 중심 국가였으나, 기후변화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의 농업 기술 및 체계를 이용한 농업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엘살바도르에 6차 산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형 ODA 연계 사업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엘살바도르는 변화하는 농업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시

16) 실제로 2015-2016년 커피수출의 경우 올해 대비 약 24만 자루(60kg)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록적으로 낮은 생산량이 예상됨.

17) 6차 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함. 6차 산업이 농가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는 6차 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에 있으며, 원료가 되는 생물이나 자원이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개념임.

의적절한 대응으로 농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한국이 향후 주요 경제·농업협력국으로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5. El Salvador Coffee Annual 2015. USDA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5. El Salvador Sugar Annual 2015. USDA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UNDP

참고사이트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www.doopedia.co.kr)
위키피디아 (ko.wikipedia.org)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keri.koreaexim.go.kr)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www.globalwindow.org)
주 엘살바도르 한국 대사관 (slv.mofa.go.kr)
ODA Korea (www.odakorea.go.kr)
6차 산업 (www.6차산업.com)
관세청 블로그 (ecustoms.tistory.com)
FAO Stat (faostat.fao.org)
World Bank (www.worldbank.org)
Open Aid Data (www.openaiddata.org)
USDA (www.usda.gov)
Trading Economics (www.tradingeconomics.com)
Alliance for coffee excellence (www.allianceforcoffeeexcellence.org)
Voices on the Border (www.voiceselsalvador.wordpress.com)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www.energia.mofat.go.kr)
전자신문 (www.etnews.com)
대기원시보 (www.epochtimes.co.kr)